Articles from South Korea's 3 largest daily newspapers: Dong-a, Hankook (Korea Times), Segye Times

PROJECT CANCELLED

44년 19살때 해군중위로 참전 日대공포맞고 해상탈출 성공

조지 부시 前美대통령이 해군비행사로 복무중이던 2차대전말 직접 전투기를 몰다 일본근처 태평양에서 격추된 美해군 전투기의 잔해를 인양하려는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활발히 진행돼 관심.

美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해저탐사전문회사인 페루마르社의 제임스 이건 사장은 2일 『지난 9년여의 준비끝에 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진척돼 내년 가을쯤 본격 인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건 사장은 『모두 1천2백만달러가 소요될 프로젝트와 관련, 이미 한국 및 일본과도 접촉을 가졌다』면서 『한국의 현대 삼성 및 LG그룹중 하나와 예비접촉을 가졌으며, 부산항을 이 프로젝트 수행의 거점으로 사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페루마르社 자료에 따르면 2차대전 당시 19세의 해군 중위로 참전했던 부시 前대통령은 3인승의 美해군 TBM 「아벤저」 뇌격기를 몰고 작전에 나섰다가 44년 9월2일 日본토에서 남쪽으로 약 9백㎞ 떨어진 「치치지마」인근 해상에서 일본군의 대공포에 의해 격추됐다. 부시 前대통령은 당시 탈출과정에서 머리를 약간 다쳤으나 인근 해상을 초계중이던 美잠수함에 의해 곧 구조됐다.

이건 사장은 부시의 전투기 잔해가 『동경 약 1백42도와 북위 약 27도가 교차되는 해저에 가라앉아 있을』 것으로 확인했으며 선박 2척과 원격조정 해저로봇 등을 동원해 인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연합〉

95.8.4 세계

2차대전때 격추「부시 전투기」

잔해인양작업 내년 본격화

1,200만弗 소요… 한국기업 참여검토

조지 부시 前美대통령이 해군비행사로 복무중이던 2차대전말 직접 전투기를 몰다 일본근처 태평양에서 격추된 美해군 전투기의 잔해를 인양하려는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활발히 진행돼 관심.

美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해저탐사전문회사인 페루마르社의 제임스 이건 사장은 2일 『지난 9년여의 준비끝에 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진척돼 내년 가을쯤 본격 인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건 사장은 『모두 1천2백만달러가 소요될 프로젝트와 관련, 이미 한국 및 일본과도 접촉을 가졌다』면서 『한국의 현대 삼성 및 LG그룹중 하나와 예비접촉을 가졌으며, 부산항을 이 프로젝트 수행의 거점으로 사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페루마르社 자료에 따르면 2차대전 당시 19세의 해군 중위로 참전했던 부시 前대통령은 3인승의 美해군 TBM 「아벤저」 뇌격기를 몰고 작전에 나섰다가 44년 9월2일 日본토에서 남쪽으로 약 9백㎞ 떨어진 「치치지마」인근 해상에서 일본군의 대공포에 의해 격추됐다. 부시 前대통령은 당시 탈출과정에서 머리를 약간 다쳤으나 인근 해상을 초계중이던 美잠수함에 의해 곧 구조됐다.

〈워싱턴=연합〉

95.8.4 한국

"2차대전末 日근해 추락 부시조종 美폭격기 인양"

美서 사업추진

"한국재벌도 참여… 부산港거점 희망"

조지 부시 前美대통령이 조종하다 2차대전 말기 일본 근처의 태평양상에서 격추된 美해군 전투기의 잔해를 인양하려는 사업이 미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美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해저탐사 전문회사인 페루마르社의 제임스 이건사장은 2일 『9년여의 준비를 마치고 내년 가을께 본격적인 인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1천2백만달러가 소요될 이 사업에 한국 및 일본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의 3대 재벌그룹중 하나와 이미 예비 접촉을 가졌으며 부산항을 이 사업수행의 거점으로 사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2차대전 당시 19살의 해군중위로 참전했던 부시 前대통령은 3인승 美해군 TBM 「아벤저」뇌격기를 몰고 작전에 나섰다가 44년 9월 2일 日본토에서 남쪽으로 약 9백㎞ 떨어진 「치치 지마」인근 해상에서 日대공포에 의해 격추됐으나 인근 해상을 초계중이던 美잠수함에 의해 곧 구조됐다. 부시 前대통령은 탈출때 머리를 약간 다쳤다.

【워싱턴=연합】

조지 부시 前美國대통령이 몰다가 2차대전 말 日本 근처의 태평양에 격추된 美해군 전투기의 잔해를 인양하려는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활발히 진행돼 관심을 끈다. 美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해저탐사 전문회사인 페루마르社의 제임스 이건사장은 2일 『지난 9년여의 준비 끝에 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진척됐다』면서 『내년 가을께 본격적인 인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건 사장은 『모두 1천2백만달러가 소요될 프

2차전때 日근해 격추 「부시 전투기」 인양키로

동아 95.8.4

韓·日기업과 접촉"

로젝트와 관련해 이미 韓國및 日本과도 접촉을 가졌다』면서 『현대 삼성및 LG 그룹중 하나와 예비접촉을 가졌다』고 밝혔다. 페루마르社 자료에 따르면 2차대전 당시 19세의 해군 중위로 참전했던 부시 前대통령은 3인승 TBM 아벤저機를 몰고 작전에 나섰다가 44년 9월 2일 日본토에서 남쪽으로 약 9백㎞ 떨어진 치치 지마 인근 해상에서 日대공포에 의해 격추됐으나 인근을 초계중이던 美잠수함에 의해 구조됐다. 페루마르사의 이건사장은 전투기를 인양하면 韓美日 3국이 동참해 이를 복원토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聯)

聯合通信 YONHAP NEWS AGENCY